



22122331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Monday 14 May 2012 (afternoon)
Lundi 14 mai 2012 (après-midi)
Lunes 14 de mayo de 2012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A

창비청소년문학상

청소년 독자를 대상으로 쓴 미발표 장편 소설을 대상으로 하며, 신인과 기성 작가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과 함께 유럽 문화예술 탐방 기회를 제공하며, 수상작은 창비에서 출간합니다.

작품공모

- 모집부문 청소년을 대상독자로 한 미발표 장편소설
- 분량 200자 원고지 700매 내외
- 응모자격 신인 및 기성작가 제한 없음
- 시상내역 원고료 2,000만원과 유럽 문화예술 탐방 기회 제공
- 마감 2012년 9월 30일
- 보낼곳 413-756 경기도 과천시 교하읍 문발리 513-11 창비 어린이청소년출판부
- 발표 2012년 11월 15일 본사 홈페이지(입상자에게는 개별 통지)
- 기타 1.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합니다.
2. 유럽 문화예술 탐방은 국제도서전 참관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3. 응모시 원고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꼭 써주십시오.
4.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만 받습니다.

<창비> 2010



본문B

전자파 인체 흡수율에 주목하라

미국 ‘환경연구단체’는 홈페이지에 자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휴대전화의 전자파 인체 흡수율 (SAR) 정보를 공개한다. 더 나아가 ‘베스트 10’(SAR가 가장 낮은 휴대전화)과 ‘워스트 10’(SAR가 가장 높은 휴대전화)을 선정한다. 우리 잡지도 국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전화 106개 품목의 SAR를 일일이 확인해봤다. 또한 미국 환경연구단체는 전자파 회피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관련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나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아래 표에는 전자파를 피하는 방법이 8가지 소개되어 있다.

표2. 휴대전화 전자파를 피하는 방법

1.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이 낮은 제품을 사라

각 휴대전화 제조사의 홈페이지나 사용설명서를 통해 SAR를 확인한 뒤, 가능한 한 SAR가 낮은 제품을 구입한다.

2. 헤드셋이나 스피커를 이용하라

유선 헤드셋 혹은 전자파 방출이 낮은 무선 헤드셋을 사용한다. 스피커로 통화하는 것도 전자파 노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휴대전화는 발신자의 말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전자파를 많이 발생시키므로 통화할 때 되도록 말을 줄이는 게 좋다.

4. 휴대전화 통화나 보관 때 몸과 거리를 뒤라

통화할 경우 몸에서 15mm 이상 떨어뜨리는 게 바람직하고, 호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보관할 경우 ‘부드러운 신체조직’이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거리를 두는 게 좋다.

5. 되도록 통화 대신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라

휴대전화는 통화보다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전자파가 적게 발생한다.

6. 신호가 낮은 곳에서는 통화하지 마라

수신 감도가 낮은 곳에서는 휴대전화가 중계기의 신호를 잡으려고 좀더 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키므로 되도록 신호 감도가 높은 곳에서 통화한다.

7. 아이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라

어린이의 두뇌는 성인보다 전자파 피해를 두 배가량 더 입을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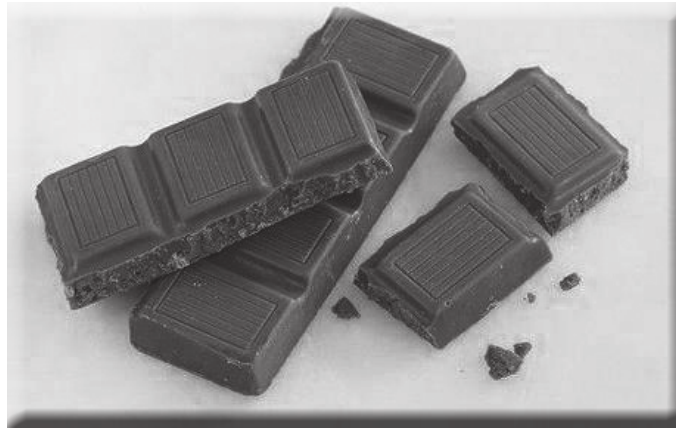
8. 금속 재질의 안경이나 귀고리 등은 피하라

금속테 안경을 쓰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머리가 흡수하는 전자파의 양이 늘어나 SAR가 4%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겨레21> 2010.10.15

본문 C

초콜릿



- ①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국민들의 비만을 관리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만이라 함은 표준체중보다 약 30퍼센트 정도 더 많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005년 비만을 통계를 보면 성인 남성은 36퍼센트, 성인 여성은 30퍼센트, 어린이는 16퍼센트를 넘어섰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므로 정부가 건강보험으로 지출하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초콜릿은 비만 혹은 비만의 잠재 위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미각, 촉각, 후각을 자극하여 [- 21 -] 한다. 초콜릿은 단백질 8퍼센트, 탄수화물 60퍼센트, 지방 30퍼센트의 이상적인 식품이다. 또한 비타민도 들어 있어서 등산, 하이킹을 할 때 준비해 가는 비상식품으로 매우 좋다. 초콜릿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외에도 약 300여 종류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으며, 그 중에는 먹고 나면 우리의 오감을 기쁘게 하는 물질도 있다.
- ③ 초콜릿에 포함된 300여 가지 화학물질 중에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물질은 페닐에틸아민이다. 이 물질은 좋아하는 이성을 바라보거나 손을 잡을 때와 같이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때 분비되는 물질로, 보통 100그램의 초콜릿 속에 약 50~100밀리 그램 정도 포함되어 있다
- ④ 초콜릿의 또다른 성분 중에서 관심을 끄는 화학물질은 카페인과 티오브로민이다. 카페인에 대해서는 많은 독자들이 그것의 화학구조는 몰라도 커피나 탄산음료 등에 포함된 물질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 대략 커피 한잔에 100~160 밀리그램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초콜릿에도 대략 100그램당 약 20~100밀리 그램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
- ⑤ 그러나 초콜릿에는 카페인과 화학성분, 분자 구조가 거의 유사한 티오브로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카페인보다 더 많이 들어 있다. 초콜릿을 먹고 나면 사람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덜 느끼고,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는데, 이것은 모두 티오브로민의 작용이다.

여인형 <퀴리 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 도서출판 한승 2007

본문 D

<슈퍼스타K2> 김용범 책임 피디 인터뷰

김용범 피디는 지난 2년 동안 노래경연 프로 <슈퍼스타K2>를 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둔 피디이다.



이런 성과를 기대했나.

절대 아니다. 지난해 ‘시즌 1’을 할 때, 오디션 프로가 국내에서 성공한 전례가 없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익적 취지도 있어 시청률 압박도 크게 없었다. 그런데 8% 남짓 나왔다. 올해 ‘시즌 2’에는 시청률 14%를 기록했다.

화면에선 말 그대로 루저들의 절박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사실 일반인이 나와 노래하는 것만큼 지루한 일도 없다. 당초의 기획 방향이 가족 중심의 오디션 프로였다. 점수가 발표될 때도, 응원을 받을 때도 가족을 비춘다. 17살 참가자의 공연을 보면서 내 딸·아들을 생각할 수 있게 감정이입이 됐으면 한다. 이들이 꿈을 얘기하고 무대에서 커가는 걸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이도 있을 것이다. 노래만이 아닌,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면, 그것은 가족, 아픈 사연, 추억, 심지어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배경을 함께 엮고자 했다.

문제는 참가자들의 절박함과 절망이 노골화되고 상업적으로 과용된다는 논란이다.

그런 지적들에 늘 조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래와 관련 없는 사생활은 파지 않는다. 촬영 현장에선 제작진의 의도가 미처 개입할 수 없을 만큼 카메라가 많이 들고 있다. 경선 중에 실제 나타나고 노래와 관련한 리얼리티라면 내보낸다는 게 우리의 방향이다.

참가자가 각오했더라도 막상 브라운관의 제 모습을 보면 충격이 따를 것 같다. 악플 등에 취약하고 회복이 어려운 일반인이다.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참가자한테 방송에 대한 동의를 받긴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많은 이들이 즐겁게 참석했다가 오디션에 떨어지고선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본방송 뒤 당사자 요청에 따라 재방송편에선 개인사 대목을 추려내기도 했다. ‘목소리’는 그들이 유일하게 가져, 마지막으로 기댄 전부인 셈이다. 김 피디는 “더 이상 시청률 욕심은 없다”며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서 우승자가 나오고, 실력 있는 도전자들이 가요계에 잘 자리잡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21> 2010.10.15